유노쓰 에코지 절과 사이라쿠지 절

서로 인접한 이 두 곳의 불교 사찰은 유노쓰 마을과 그 주변의 산림을 가로지르는 험준한 절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라쿠지 절과 에코지 절 모두 암반의 일부를 깎아 낸 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는 묘지용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확장한 땅입니다. 두 사찰 중에서도 더 긴 역사를 간직한 사이라쿠지 절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종 사찰이었지만 1521 년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사원으로 개종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831 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사이라쿠지 절은 권력의 힘이 닿기 어려운 무연소('연이 없는 장소'라는 뜻)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신자들을 위한 성스러운 구역이었습니다.

니치렌종(日蓮宗)의 사찰인 에코지 절은 작은 기와로 이은 지붕이 마치 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의 묘지에는 17 세기 후반부터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항로(기타마에부네)를 분주히 오가며 해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지역민들의 무덤이 있고, 왼쪽 절벽을 따라서는 에도 시대(1603~1867) 초기에 세워진 묘석 등 긴 역사가 느껴지는 유구들이 남아 있습니다.